

코스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미 증시 상승, 기술주 강세에 동조화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박수진 soojin.park.a@miraeasset.com

한국 증시 장중 리뷰:

경기 둔화 우려에도 미 증시 상승에 위험선호심리 확대

- 양대지수 모두 상승. 미국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발표했지만 열린 재무장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미 증시 상승. 애플, 아마존의 호실적 발표까지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 다만, 장중 중화권 증시 하락에 상승폭은 일부 반납.
 - 인터넷주 강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기술주 전반 투자심리 회복
 - 방산업종 상승.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 통합과 풍산의 방산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 등의 호재로 업종 전반 기대감 확대
 - 의약품 업종 약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 부진, 향후 코로나 백신 관련 매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우려에 하락. 업계 전반 환율, 코로나 이슈로 실적 변동성 확대 예상
- 전일 1300원을 하회하며 마감했던 달러/원 환율은 재차 상승하며 원화 약세.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에도 월말 네고물량 출회 영향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 확대

아시아 증시 장중 리뷰

중화권 증시, 미중정상 통화와 정치국회의 실망감에 하락

- 중국 주요 지수 하락. 미중 정상 통화가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대중관세 인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과 7월 정치국회의 또한 시장을 자극할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실망감 반영. 장초반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었지만 매도 전환 확대
 - 중국 7월 정치국 회의: 경기 안정을 견지하되 적극적인 수요 확대 필요. 사회적인 수요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정책 확대 강조. 플랫폼 기업의 건강한 발전 추진, 개혁을 마무리하고 관리감독 상시화 할 것.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출시를 주문. 부동산 리스크 해결을 위한 지방 정부 책임 강화와 주택인도 보장 강조
 - 상무부는 지방정부와 결합해 자동차, 스마트 가전 소비촉진 정책 추가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오후장 자동차업종 반등
- 홍콩 주요 지수 하락. 특히 빅테크 전반 하락하며 항셍테크지수 -4% 이상 하락
 - 정치국회의에서 플랫폼 경제 규제완화 시그널에도 마윈의 앤트그룹 지배권 포기, 항저우 지역에서 메이투안과 어러머 등 외식배달 플랫폼에 식품안전 관리 책임과 약성 저가 경쟁 금지에 대한 경고 조치 발표가 이어지며 투자심리 재차 위축

미 증시 전망

10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

- 애플, 아마존 호실적 발표에 나스닥 야간 선물 1%넘게 상승
이번 주 FOMC, 빅테크 실적, 2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굵직한 경제지표들을 소화하며 미국 증시는 안도랠리(relief rally)를 이어나가는 모습. 만약 오늘까지 추가 상승한다면, 지난 4월 이후 지속 하회했던 10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상승. 다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과 기술적 저항으로 인한 상승 움직임 둔화 가능성도 있어

일단 오늘은 애플과 아마존이 시장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애플(AAPL)은 전일 장 마감 후 +3% 가까이 상승하였고, 아마존(AMZN)은 +13.6%나 상승하며 직전 2개 분기(21Q4와 22Q1)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무엇보다 팀쿡 애플 CEO는 “인플레이와 강달러에도 실적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과 아마존은 3분기 매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 1264억 달러대비 1250~1300억 달러로

전망한 점이 증시 상승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

전일 -0.9%로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후속 평가가 지속될 수 있어. 시장은 경기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며, 지난 6월 중순 3.5%에 달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66%까지 하락. 이에 따라 다양한 만기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할 순간에 직면했거나 역전 상태가 7월 내 지속되기도 해. 특히 GDP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의 전반적인 부진 또는 둔화는 향후 미국 경기를 놓고 논쟁이 확산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시장 내 노이즈는 커질 것으로 예상

오늘은 연준이 정책의사결정을 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6월 PCE물가지수와 2분기 고용비용지수(ECI)가 발표될 예정.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도 해당 지표들에 대한 파월 의장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뿐만 아니라 개인소비지출(PCE) 모두 지켜보겠지만, 우선적으로 PCE를 보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혀. 고용비용지수(ECI) 역시 '임금-가격 나선효과'를 고려해 중요시 보는 지표인데, 최근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ECI 흐름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혀. ECI는 직원보상비용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직접비용(임금, 상여금 등)과 간접비용(사회보장보험 부담금, 교육비용, 의료혜택, 세금 등)으로 나뉘져 있어. 지난 1분기에는 +1.4%였지만 2분기는 +1.2% 예상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